

사회 >> 3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획 >> 4-5면

추억이 몽골몽골, 대학생들의 6박 7일 몽골 여행기

현장르포 >> 6면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구의 미래

제582호

2024년 12월 13일(금)

서경대, '도전! 제주탐험대' 2년째 제주서 쓰레기 줍는 플로깅 펼쳐

제주 올레길 코스 27km 걸으며 환경 보호 실천해



서경대학교 제52대 한숲 총학생회는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제주 올레길 코스를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프로그램 '도전! 제주탐험대'를 진행했다. 본 행사에는 학생회 인원을 포함해 서경대학교 학생 60여 명이 참여해 4박 5일 간의 제주 여정을 마쳤다. 지난 7일 말,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사전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교육

으로 전반적인 행사 안내와 더불어 안전 교육, 위급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성교육 등이 실시됐다. 이후 조별로 사전 제공 물품이 지급됐다. 학생처장 함형준 교수는 참석한 학생들에게 다치지 말고 건강히 잘 다녀올 것을 당부했다. 첫날, 김포공항으로 집합한 학생들은 인원 점검 및 체크인 후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 비행기에

탑승한 학생들은 짐을 싣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4박 5일간 가방을 메고 걸어야 했기에 한 사람당 오직 한 개의 가방만이 허용됐다. 제주에 도착한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제주 올레길 4코스 후반부에 해당하는 태흥 2리포구로 이동해 약 4km를 걸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2일 차에는 올레길 5코스를 따라 남원포구부터 위미항을 거쳐 속소로 향했다. 이날 학생들은 약 13km를 걸으며 지칠 법도 했지만 가방을 들어주는 등 서로를 북돋우며 발걸음을 내디뎠다. 3일 차에는 올레길 6코스 시작점인 쇠소깍을 향해 약 4km를 걸은 뒤, 하회소작깍해수욕장에서 해안정화활동을 벌였다. 4일 차에는 제주 올레 6코스의 막바지를 향해 6km가량을 걸었다. 쇠소깍에서부터 해안 길을 따라 보목포구와 구두미포구를 지나 걸어가다 보니 백두산 천지를 축소해 봤다는 소천지가 보였다. 소천지 숲길에

서 시원한 물소리가 들렸다. 소정방 폭포였다. 더위를 식혀주는 물안개 속에서 발을 헧디며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아줬다. 묵묵히 코스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서귀포 시내에 다다랐다. 무사히 속소에 도착한 학생들은 송골송골 땀한 몸을 훑으며 서로에게 고생했다는 인사를 건넸다. 완주했다는 안도와 함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자 거짓말처럼 시원한 빗줄기가 내렸다. 문화 체험을 모두 실내 활동으로 전환해 조별로 자유 시간을 갖고, 다음 날 이른 아침 행사를 마쳤다. "대학 생활 중 의미 있는 경험을 쌓고 싶었다"며 "평소 환경 관련 활동은 개인보다 단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는 장동휘(나화생 24) 학우는 "참여하길 잘했다"면서 "교내 프로그램인 만큼 부담없이 참여해 플로깅을 하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 학우는 인상 깊은 일에 대해 "땀이 겹다 보니 3일 차에 신발 밑창이 뜰어지기 시작했다. 일정이 거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어 다행이었지만 무척 당황했다"고 당사를 회상했다. 이어 "플로깅 중 걸음 속도가 빨라 안전 문제로 쓰레기를 줍기에 촉박한 데 더해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조원들의 도움 덕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맛집에 들러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학우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즐거웠고, 특히 점심·저녁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며 "조원들 관리를 위해 힘써주신 조장 분들과 학생회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섰던 여름, 제주탐험대는 폭염특보까지 발효됐던 제주에서 일정 내내 울리는 안전 안내 문자 경고음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학생들은 플로깅을 통해 몸소 환경 보호를 실천하며 봉사와 협동의 가치를 일깨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회차를 맞은 제주 플로깅 활동은 지난 행사를 발판 삼아 일정을 보완해 낙오자 없이 총 27km를 완주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마쳤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허름했던 사물함의 재탄생... 북악관, 헤인관 사물함 재정비



▲ 출처 : 총학생회

지난 9월, 본교 북악관과 헤인관에 전자 사물함이 도입됐다. 헤인관에는 기존에 사물함이 없던 2층과 4층에 사물함이 설치됐다. 북악관의 경우, 1층 105호 부근에 있던 사물함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사물함은 9월 9일부터 12월 26일까지, 2학기 재학 중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사물함 교체로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의 사물함 이용료가 증가했다. 이번 교체 작업을 통해 전자식 사물함이 도입되면서 도난 사건과 안전 문제로부터 학생들의 걱정을 덜고, 손쉽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전자 사물함 손잡이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보안성을 극대화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김소희 수습기자
 (paa328@skuniv.ac.kr)

뜨거운 햇빛 아래, 빛나는 미래를 향해

제74회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성료

지난 8월 14일, 서경대학교에서 제74회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본교는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생들은 별다른 행사 없이 학위증서를 수령했다. 학위증서는 당일 본인의 학과가 지정한 곳에서 개별로 수령할 수 있었다.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거행한 학과가 있는 한편 교수와 졸업생들의 마지막 면담으로 간단하게 졸업식을 끝내는 학과도 있었다. 총학생회 산하 졸업준비국은 당일 10시부터 3시까지 청운관 L층에서 학사복 대여사업을 진행했다. 약 150명 정도가 학사복을 대여했다. 웃을 갈아입은 학우들은 설치된 포

토월에서 사진을 찍으며 학교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남겼다. 졸업생의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머리를 정돈해 주거나 리본을 매 주는 졸업생 가족들의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학교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위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사업을 진행한 한숲 총학생회 김세진 졸업준비위원장은 "행사를 주관한 담당자로서, 또 함께 캠퍼스를 거닐던 동료 학우로서 여러분의 졸업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 기쁜 날 초록빛 가을을 입고 캠퍼스를 온통 풀잎으로 물들여 주신 학우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몽글몽글과 동시에 감동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 유난히 맑았던 졸업식 날처럼 쾌청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사 령

12월 13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면합니다.

- ▶ 면 부편집장 김나연 (일어 23)
- ▶ 임 부편집장 김나연 (아동 22)
- ▶ 임 정기자 김나연 (일어 23)
- ▶ 임 정기자 김경민 (불어 23)
- ▶ 임 정기자 전준혁 (광흥 23)



서경대 교수학습원, 2024학년도 2학기 S-Learning Academy 프로그램 진행해

9월 맞이 특강 '데이터 시각화와 인포그래픽 제작 실습' · '성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열려



서경대학교 교수학습원이 2024년 2학기 맞춤형 학습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S-Learning Academy)을 운영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열린 본 프로그램은 스디지컬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 △메타인지 자기 주도 △글쓰기 능력 등 학우들의 다양한 학습 역량 개발을 돕도록 했다. 9월 첫 강의인 데이터 시각화와 인

포그래픽 실습 특강은 지난 9월 2일, 9일 해인관 511호에서 두 차례 이뤄졌다. 디지털콘텐츠그룹 이종구 대표가 진행한 본 특강은 약 10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모든 수강생이 노트북을 지참했으며, 디그자 형태로 책상을 놓아 강연자와 참여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이뤘다. 강연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AI) 종류와 챗 GPT 활용법, PPT 디자인

구성법 및 활용 팁 등을 소개했다. 특히 챗 GPT 활용법 강의 중 강연자의 직접 시연을 통해 수강생들의 상세한 이해를 도왔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학우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9월 11일에는 성교육 전문가 김유현 강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7명의 학우가 참여한 소규모 토크쇼 형식이었으며,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닌 개인적인 성 고민이나 연인 간의 관계 문제 등을 상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애인과 올바른 성생활을 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알맞은 피임법을 OX 퀴즈 형식으로 풀어내 참여자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김유현 강사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성이 가볍게 여겨지는 풍조를 비판하고, 올바른 성 관념과 정보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교수학습원 김명숙 연구원은 "대학생에게 성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접적인 요소만을 제공하는 초등 성교육은 쓸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대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주제를 다루고자 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교수 학습원의 S-Learning Academy는 11월 27일까지 9차례 운영됐다. 패션, 인문학 강연, 필기법 및 리포트 작성법, 발표 전략 등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폭풍의 언덕'의 변신... 어쩌다 공사했나 이유 살펴보니

지난 여름 방학 동안 서경대학교가 2학기의 시작에 앞서 학교 재정비에 나섰다. 학생 생활관 시설을 보수하고, 해인관 화장실과 본관 교수 연구실을 새롭게 단장했다.

그중 단연 눈에 띈 변화는 일명 '폭풍의 언덕'이라 불리는 학내 오르막길 보행로를 손본 것이다. 기존 보행로는 한쪽은 대리석 계단, 다른 한쪽은 작은 돌이 박혀있는 경사로였는데, 9월 중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보행로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 경사로로 조성됐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공사를 실시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누수'에 있었다. 그는 오르막길 내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발생했고, 이는 오르막길과 수직으로 연결된 지하 주차장과 본관까지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공사를 계획하는 데 안전 문제도 한몫했다. 기존 대리석 계단에서는 실족이나 계단 깨짐 등의 사고가 빈번했다. 관계자는 대리석 특성상 일반적인 돌 표면보다 미끄럽고 잘 깨져 잦은 수리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돌이 박혀 있던 경사로에서도 돌이 빠져나오

거나 균열이 생겨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학교는 이번 보수를 통해 이 같은 애로 사항을 없앨 것이며, 따라서 "대리석과 계단은 더 이상(오르막길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사에 착수한 학교는 누수 방지를 위해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대리석과 계단을 들어낸 경사로 표면에는 가운데 통행로처럼 미끄

럼 방지 패턴을 적용해 통행 시 느껴지는 미끄러움을 최소화했다. 학생들은 달라진 오르막길에 "계단이 보폭과 맞지 않아 불편했는데 차라리 없어진 것이 낫다"와 "눈비가 올 때 내리막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아떡하냐"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한국 땅에서 만난 한 핏줄... '2024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개최



▲ 출처 : 서경투데이

서경대학교 언어문화교육원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4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가 8월 4일부터 13일까지 9박 10일간의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 캠프에 참여할 기회는 일본 관동·관서 지역에 거주 중인 재일 동포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2차례의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발된 최종 60여 명의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선발된 60여 명의 학생들은 한국

에 오기 전 각각 도쿄와 오사카에서 진행된 사전연수에 참여했다. 캠프는 서경대 학우들 중 선발된 인원을 포함해 선정된 생활지도 교사 8명의 인솔하에 이뤄졌다.

본교 언어문화교육원에서는 이번 캠프에 참여하는 차세대 동포 학생들을 위해 한국 문화와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교육, 드론 체험과 3D 프린터 체험 학습, K-Beauty, K-Music, K-Pop & Dance 체험 학습 등 다양한 문

화 체험 학습을 제공했다.

[학우 인터뷰]
- 김경민(글로벌비즈니스학부 23학번)

Q. '2024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일본어를 배우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알아보고 있던 때, 선배의 권유로 이

사업을 알게 되어 참여했습니다.

Q. 생활지도 교사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A. 아이들의 수업 진행을 돕고, 외부 체험 학습이나 교실·식당·보건실 등으로 이동 시 아이들을 인솔했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일본어로 통역하고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등 다른 인솔자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캠프 진행을 도왔습니다.

Q. 프로그램 이후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A.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평소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욱 다양한 국적 출신이거나 다양한 나라에 거주한다는 점을 알게 됐고, 그중에서도 한국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 하는 이들도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좀처럼 마주하기 어려운 아이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통해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둘 다 능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런 친구들처럼 자유자재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도 느끼게 됐습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서경대 진로취업지원센터,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학생 성장 돕는다



▲ 출처 : 서경대 홈페이지

서경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가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소속 기관인 진로취업지원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인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지난 7월 31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2024학년도 서경대학교 GTQ 1

급 자격과정 교육 안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접적인 취업 구직 기술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실시했으며, GTQ(포토샵) 1급 자격과정의 기술 문제 유형 파악부터 실전 시간 관리 전략까지 포함됐다. 자격과정 교육 외에도 학생들의

진로·취업 지원에 활발히 힘쓰고 있다. 센터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2학기 진로동아리를 모집했다. 진로동아리 프로그램은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진로 목표와 학년별 필요한 경력 관리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동아리별 활동비 20만 원이 지원되며, 부담 없이 동아리 자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1:1 진로 탐색 및 목표설정 상담, 직무 및 기업 분석 상담, 취업 준비 상담, 자기소개 컨설팅, 면접 컨설팅 등은 상시 운영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한 학년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홈페이지 또는 진로취업지원센터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기 중과 방학 기간 다양한 특강, 멘토링, 경진대회, 캠프, 취업박람회 등이 운영된다.

강예진 수습기자
(jinvd@skuniv.ac.kr)

한 눈에 보는 이슈

정치

광복절 아닌 건국절? 신임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논란'

경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하고 주택 공급... 집값 안정될까

사회

잇따른 스포츠계 협회 논란... 파리 올림픽의 명과 암

문화

일본, 손바닥 뒤집듯 태도 번복...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예

문가비·정우성, '득남' 소식... 비혼 출산이 쏠아올린 공

스포츠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외교부 행사서 기조연설

자세히 보는 이슈

광복절 아닌 건국절? 신임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논란'

지난 8월 6일 새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형석 관장이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휩싸였다.

뉴라이트(New Right)는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신보수주의 세력으로, 기존 보수의 전통적 가치와 정책을 일부 비판하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등 보다 급진적인 보수주의 입장을 취한다.

뉴라이트는 등장 직후 왜곡된 역사관으로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08년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한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기술하고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였다.

김 관장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안익태, 백선엽 등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들을 옹호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 칭하는 등 뉴라이트 관련 발언을 했다.

취임식 직후 추진하고 싶은 중점 과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역물하게 친일로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 제기할 것"이라 답변했다. 역대 독립기념관장이 주로 순국선열이나 독립 유공자 후손이었던 행적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이에 광복회와 야당, 독립운동단체가 사상 초유로 정부 주관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했으며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는 자체적인 별도 행사를 진행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뉴라이트 인사들의 건국절 주장은 일본의 침탈을 합법화하는 매국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출처: 매일신문

김 관장의 뉴라이트 논란으로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거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전국 18살 이상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형석 관장 임명 철회 검토 필요성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가 임명을 철회하거나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출처: 한겨레]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외에도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역사 관련 기관에 다수 등용해 친일 행보를 이어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학중앙연구원 뉴라이트 성향 단체 '교과서

포럼' 창립 인사인 김주성 한국고원대 명예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위안부 역사를 오류라고 주장한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인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를 원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며 "김 관장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역량만을 보고 독립기념관장을 선발한다"고 주장했다.

50대 공무원 A 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국가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역사교육을 강화해 한국인으로서 중요하게 삼아야 할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하고 주택 공급... 집값 안정될까

지난 8월 8일,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주택 8만호 중 5만호는 2024년에, 3만호는 2025년에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는 그린벨트 구역 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공간이 활용된다. 후보지와 물량은 11월 5일 공개됐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천4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천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천가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세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 맞춰 주택 대부분을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공급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과 청년 주택 마련에 보탬이 되겠다는 것이다. 또한 투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린벨트 해제는 8·8부동산 대책의 방안으로,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최대한 자제했으나 정부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와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한편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것은 지방 소멸에 다가서는 길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일부 지방의 경우,

오히려 주택 과잉 공급이 발생해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수도권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그린벨트 해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무분별한 주택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을 야기하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제 공급은 대략 5년 이상 걸리기에 이번 대책과 현재 집값 안정과는 관련이 적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수도권과 같이 건물이 밀집한 도시에 녹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대도시가 인근 지역까지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현재 서울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도시의 열섬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지정된 서울 외곽 지역보다 중심부 온도가 평균 3.46도 높다.

그린벨트는 미래 후손을 위해 보존해야 할 공간이다. 단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만을 내세워 얼마 남지 않은 도심 속 녹지마저 사라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득보다 실이 크다.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초래할 파급을 고려해야 한다. 이 대책이 과연 주택 부족 해소라는 발등의 불을 끄는 것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장기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신기은 수습기자
(yulyull1214@skuniv.ac.kr)



▲ 출처: 연합뉴스

잇따른 스포츠계 협회 논란... 파리 올림픽의 명과 암



▲ 출처: 머니투데이

지난 8월 11일 파리 올림픽이 폐막했다.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종합 8위를 기록하며 일전에 대한체육회가 목표로 삼은 금메달 5개와 종합 15위를 훨씬 상회하는 성적을 이뤘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의 선수단이라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다.

하지만 대표팀의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리 올림픽은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명과 암을 여실히 내비친 대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림픽 전후로 대한체육회를

위시한 여러 협회에서 논란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안세영 선수는 패거리를 누릴 새도 없이 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의 발목과 무릎 부상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상 관리에 대한 협회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국제 대회 참여 여부에 관한 관리, 스폰서 및 스포츠용품 조달 관리 등 협회의 행보에 대한 불만족

을 드러냈으며 여러 불공정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안 선수의 자식 발언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문체부는 즉각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 보조금 집행 등 전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헤쳤다. 조사 결과, 배드민턴협회가 보조금법을 위반한 정황과 후원 물품을 부당하게 배부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연,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및 번복, 이강인·손흥민 불화 인정 등 행정력이 있어 큰 비판을 받아오다 결국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오욕을 남겼다. 문체부 감사 결과, 홍명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사격연맹은 신명주 회장의 직위 임급 체불 사태가 공론화되면서 회장 본인과 31명의 이사진 모두가 사퇴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스포츠계 협회 문제가 우후죽순 발생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파벌주의와 권위주의적 행태, 불공정성 등이 한국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체육계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강준호 서울대 사범대학 학장은 자연, 학연 등의 연줄을 통한 정치화를 가장 큰 문제로 짚었다.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방체육단체장이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는 현실이 필수적인 정치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강 학장은 선거가 아닌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통한 회장 선출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스포츠 정책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출처: 동아일보]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은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를 결의하며 3연임에 대한 약속을 숨기지 않고 있고,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 또한 4연임 도전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 스포츠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화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전준혁 기자
(nicejackkyhu@naver.com)

일본, 손바닥 뒤집듯 태도 번복...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출처: 서울신문

지난 7월 27일,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사도광산(佐渡金山)은 일본 니가타 현에 있는 사도 섬 내의 금광으로, 에도시대 시절 도쿠가와 막부의 금고를 담당했으며 태평양 전쟁 때는 전쟁 물자를 채굴·조달했던 곳이었다. 이 과정에서 1,500여 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끌려와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이들은 탄광에서 하루 2~3교대의 육체노동을 하고 학대와 구타를 당했다. 식사는 콩밥과 무말랭이, 단무지에 불과했다. 임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 현재는 광산 일부가 박물관으로 조성돼 있다.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은 3년 전부터였다. 2021년 12월 일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하면서 한일 외교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사도광산이 조선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일제 징용의 장소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본 유산의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인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완전한 역사'를 반영해야 하는 세계유산 등재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자문 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조치를 취하라며 '등재 보류' 권고를 내리자 일본은 자료를 보강한 뒤 재신청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전체 역사를 반영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 설치와 매년 추도식 개최를 약속하자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결국 만장일치로 결정되자 사도광산은 인도에서 열린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의 협상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 전시실에 마련된 사도광산 근대사 연표에서 조선인 노동자 기록

을 찾을 수는 있으나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동원을 시작했다", "패전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가 돌아갔다" 등으로 표기돼 있다. 조선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지만 강제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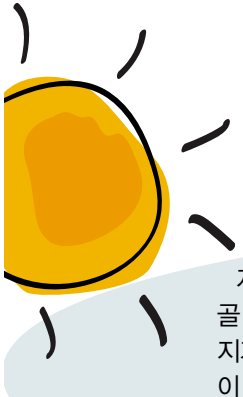
이에 '일본에 또 속아 넘어갔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일본이 한국과의 협상 내용을 온전히 실행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일본이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근대산업시설 등재 당시에도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서 조선인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약속했으나 현상이 아닌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했다. 심지어 설명란에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의 내용을 표기하지 않은 전적이 있다. 임기 시작 이후 계속해서 친일 정권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한술 더 뜬 셈이다.

11월 24일, 일본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일본 정부 인사가 대표로 참석한 데 정부가 반발해 행사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 우리 정부는 다음날 별도로 추도식을 열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추억이 몽골몽골, 대학생들의 6박 7일 몽골 여행기



지난 8월 23일, 서경대 신문사 기자 4명이 함께 몽골 여행을 다녀왔다. 일본, 동남아와 같은 유명한 여행지가 아닌 '몽골'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이 색다른 여정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우이동으로 떠났던 신문사 MT에서부터였다.

손발이 달달 떨어던 추운 밤, 기자들은 별을 보기 위

해 숙소 앞에 돛자리를 깔고 누웠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일상의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풀렸다. 별자리 판을 참고하며 별자리 모양을 맞추던 중, 한 기자가 "우리 별 보러 몽골 여행 가지 않을래?"라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너도나도 참여 의사를 표현했고, 이듬해 뜻이 맞는

기자들끼리 어렵게 시간을 맞춰 여행을 준비하게 됐다. 몽골에 빠진 이들은 비단 기사들뿐만이 아니다. 몽골은 최근 2030 사이에서 떠오르는 여행지로 꼽힌다. 광활한 초원과 사막, 호수를 보며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낙타 체험, 모래 썰매, 화산 트래킹과 같은 이색적인 체험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저

렴한 항공권과 가까운 거리, 활성화된 관광 패키지 상품도 한몫한다.

생생한 여행 준비기와 약 일주일간의 여행 코스별 소개,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몽골 유목민과의 인터뷰까지 알차게 담았다. 서경대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낭만 가득한 기자들의 몽골 여행기를 소개한다.

뭘부터 준비해야 할까? 기자들의 생생한 몽골 여행 준비기

몽골은 흔히 가는 다른 아시아 여행지와 달리 환경적, 문화적으로 생소한 국가다. 이 때문에 기자들 또한 무엇보다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다.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몽골의 핵심 관광 코스인 고비 사막과 '호스골' 호수 중 하나를 고르는 것. 네 명의 기자들 모두 탁트인 호수를 보며 힐링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만장일치로 호수 여행 코스를 선택했다.

항공권 예매와 여행사 컨택 과정

세부 여행지를 선택한 후에는 항공권을 예매했다. 몽골의 기수는 매우 높고 건조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6~8월이 여행 성수기로 꼽힌다. 기자들은 교내근로와 취업연계중점대학 인턴 등으로 바쁜 시기였기에 시간이 맞는 8월 말로 여행 날짜를 골랐다. 항공권 예약 플랫폼 '스카이스캐너'를 통해 날짜별 가격을 비교한 후, 항공사별 가격도 탐색했다. 이후 '네이버 항공권'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 예매하는 데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몽골 여행은 6인의 동행을 구해 가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게르 최대 수용 인원이 6명이라 1인당 가격이 가장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여행 경비를 줄이기 위해 동행을 구해보기도 했다. 몽골 여행 정보 카페 '러브몽골'에 가입해 대략적인 일정을 첨부한 동행 모집 글을 게시했다. 동행 희망자가 나타나 사전 모임까지 약

속했지만, 일반적인 통보로 동행이 취소되는 에피소드가 생겼다. 결국 '마음 편한' 넷이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러브몽골 카페는 동행자 구인 외에도 여행사 선택이 가능하다. 러브몽골 카페에 여행자의 여행 날짜와 원하는 코스 등을 문의하면 카페에 가입된 여러 여행사가 댓글을 달았다. 각 여행사와 채팅을 통해 원하는 여행 패키지의 견적을 받을 수 있다. 6개 여행사의 세부 일정과 가격, 가이드 후기를 비교한 끝에 저렴한 호스골 호수에 오래 머무를 수 있으며, 후기가 가장 좋은 'H여행사'를 선택했다.

효율적인 정보 정리를 위한 노선 활용

항공권과 여행사, 여행 정보 등 수많은 내용을 메신저 채팅방에 담기엔 여부족했다. 기자들은 노선을 활용해 '항공사 및 가이드 선택', '항공권 티켓', '숙소 예약', '몽골 정보 링크', '준비물 목록', '사고 싶은 것' 등 섹션을 나눠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했다. 여행을 약 한 달 앞둔 시점부터는 여행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궁금한 점과 챙겨야 할 것 등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 와이파이가 콘센트 설치 여부, 챙겨가야 할 현금, 공항 샌딩 여부, 날씨, 침낭과 판초 대어 문의 등 세세한 사항까지 문의해 여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여행을 떠나는 주에는 달러 환전을 위해 각자 은행을 방문했다.

미리 지불할 예약금을 제외한 기본 패키지 비용에 가이드와 기사 팁, 현지에서 사용할 금액을 합쳐 넉넉하게 환전했다.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환전 후 현지에서 몽골 현지 화폐인 '투그릭'으로 이중 환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자들 또한 몽골 환전소에서 공급을 투그릭으로 환전해 현지 마트에서 사용했다. 팁을 주자면, 환전소에는 꼭 신선한 달러를 가져가야 바란다. 한 기자는 구권 달러를 가져갔다 거절당하는 바람에 환전을 두 번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몽골은 한국과는 다른 기후와 열악한 숙소 환경, 긴 운전 시간을 감안해 준비해야 할 짐이 매우 많다. 한국과 달리, 8월에도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기후인지라 사계절 옷을 모두 챙겨가야 한다. 필자의 경우 낮에 입을 반팔, 긴바지, 바람막이와 쌀쌀한 밤에 입을 긴팔, 가디건, 두꺼운 바지, 경량패딩을 모두 챙겼다. 두툼한 외투와 핫팩, 양말은 후에 불강*과 호스골 호수 인근 통나무 숙소에서 유용하게 사용했다.

기자들은 노선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짐을 챙겼다. 긴 이동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도와줄 목베개, 뜨거운 햇빛을 가려 줄 모자와 선글라스, 선크림 외에도 편안한 신발, 보조배터리, 삼바약, 수건, 우산, 보습 용품은 꼭 가져가야 할 필수 아이템이다.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공용 샤워실에서 사용할 바가지, 양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을 김치와 각종 양념, 별레가 많은 몽골의 숙소에 설치할 기기 장 또한 빠질 수 없다.

1. 호스골(Хөвсгөл)
2. 투그릭(Tөгрөг)
3. 불강(Булган)

몽골은 편안한 휴식보다 이색적인 오지 체험이 추가 되는 여행지라 준비 과정부터 쉽지 않았지만, 여행을 색다르게 즐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감행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꾸준히 소통하며, 각자 역할을 분담한 덕에 준비 과정이 더욱 수월했다.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몽골 여행을 준비하며 깊이 새기게 됐다.



압도적인 풍경이 눈앞에, 울란바토르와 불강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을 들으며 창밖을 내다보니 몽골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초록빛 초원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있자니 꼭 녹차 아이스크림 위를 비행하는 것만 같았다. 몽골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새로 지었다는 칭기즈칸 공항은 모든 시설이 신식으로, 깔끔하고 깨끗했다. 짐을 찾고, 입국 절차를 마친 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습하지 않은 시원한 바람이 반겼다. 분홍빛 필터를 씌운 것만 같은 노을이 지는 저녁 몽골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저녁에는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미니사막 꼭대기에서 모래썰매를 탔다. 불빛이 하나도 없는 초원과 사막 한 가운데라 그런지 무심코 올라다본 하늘에서는 쏟아지는 별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몽골 여행의 계기가 된 MT 때처럼, 우리는 돛자리를 펴고 바다에 누워 한참을 별과 은하수를 감상했다.

불강 아이막의 문화 활동과 경제 중심지, 불강

간단히 아침을 먹고 불강 아이막의 행정 중심지인 '불강'으로 이동했다. 이날은 유독 힘들었다. 거의 모든 길 이 비포장도로여서 깨어있기도, 잠을 자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주변에서 휴게소나 식당을 찾을 수 없어, 처음으로 게르 식당을 이용했다. 내부는 청결했으나 초원 한복판에 있다 보니 날벌레와의 경상은 피할 수 없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파리가 날아다니는 화장실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던 한 기자는 결국 드넓은 초원에서 불일을 해결했다.

처음엔 불강을 간다고 해서 '강'을 보러 가는 줄 알았다. 뒤늦게 알았지만, 불강은 강 이름이 아닌 지역 이름이었다. 자다 깨다,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불강에는 비포장 도로로 달려온 설움을 모두 날려줄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피곤함도 잊게 만드는 귀여운 고양이도 만났다. 몽골 고양이라는 뜻의 '몽고'라는 이름도 지어졌다. 저런은 제육볶음이었었는데 오랜만에 먹는 한국의 맛에 밥 한 공기씩 푹푹 해치웠다. 다 먹고는 첫날 먹었던 아이스크림의 맛을 잊지 못해 주변 마트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갔다. 이날은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시도해 봤는데 역시 맛있었다. 숙소는 통나무집이었다. 불강 아이막의 중심 도시이다 보니 확실히 어제보다는 불빛이 많이 쏟아지는 별을 감상하진 못했다. 그렇지만 하늘을 올려다보면 쏟아지는 별들 덕에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1. 울란바토르(Улаанбаатар)
2. 불강 아이막(Булган аймаг)
3. 노민 마트(Номин март)
4. 엘승 타사르하이(Элсэн тасархай)
5. 게르(гэр)

하늘과 가까운 도시, 울란바토르

차를 타고 몽골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향했다.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347만 명으로 몽골 인구 거의 절반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몽골어로 '붉은 영웅'이라는 뜻을 가진 울란바토르. 이곳을 몽골의 수도로 정하고, 정착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100여 번을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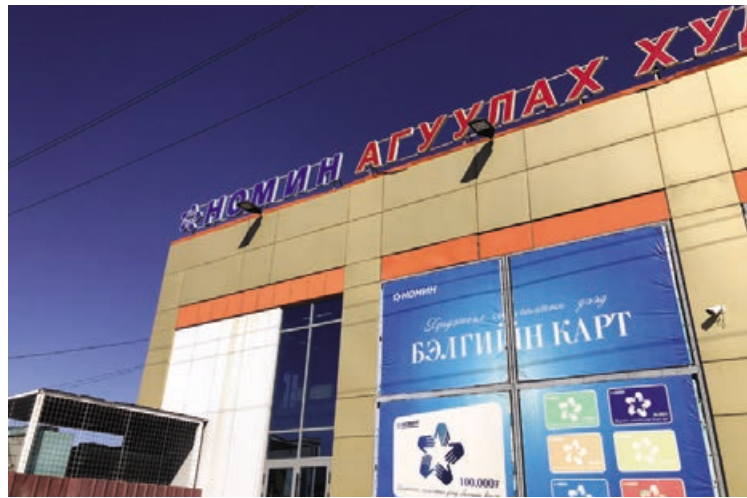
칭기즈칸 공항은 울란바토르와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시내로 들어갈수록 교통체증이 심해졌다. 시가지로 들어서니 한국 도심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내 중심에 있는 숙소 주변에는 KFC와 한식당, CU편의점, 영화관, 이마트 등이 있었다. 한국식 아파트도 보였다. 늦은 밤이라 식당은 다 문을 닫아 근처 편의점에서 산 라면이 몽골에서의 첫 끼가 됐다. 필자는 삼양라면을 먹었는데, 한국 라면보다 확실히 덜 맵다는 느낌을 받았다. 유제품이 유명하다는 명성에 걸맞게 후식으로 먹은 우유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었다.

이상하게도 몽골은 달이 크게 뜬다. 울란바토르에서의 첫날 밤도 달이 너무 크게 떠 있어서 저게 달이 맞는지 알아보는 데도 한참이 걸렸다. 몽골은 국토의 약 85%가 해발고도 1,000m 이상인, 평균 해발고도가 1,580m인 고원 국가다. 서울의 평균 고도는 약 38m에 비해 울란바토르는 약 1,350m의 고도에 자리해, 달이 더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몽골의 로망은 모두 이곳에, 엘승 타사르하이

다음 날, 여행사에서 나온 관광 가이드 '게르'를 만나 달려서 투그릭으로 환전을 마치고 여행길에 올랐다. 울란바토르를 떠나 서쪽의 '불강 아이막'으로 이동했다. 아이막은 몽골의 행정구역으로 한국의 도(道)와 비슷한 개념이다. 가는 길에 몽골의 유명한 마트인 '노민 마트'에 들러 이동 중에 먹을 과자, 젤리, 초콜릿 등 간단한 먹거리를 샀다. 다시 차를 타고 조금 더 달린 뒤에야 드디어 몽골 현지식을 맛볼 수 있었다. 양고기는 호불호가 분명한 음식인데 먹어본 적이 없어 걱정됐다. 그러나 완자처럼 양고기를 문진 요리 외의 나머지 볶음 요리와 면 요리는 모두 잘 먹었다.

달리고 달려 일명 '미니사막'으로 불리는 '엘승 타사르하이'에 도착했다. 초원과 사막이 공존하는 엘승 타사르하이는 멋진 풍경 덕에 인기가 많다. 오늘의 숙소는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였다. 기자들은 이곳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진땀 했다. 평생 동물원에서나 볼까 싶었던 낙타를 가까이에서 본 것도 모자라, 직접 그 등에 올라타고 사막을 누웠다. 낙타를 탄 채 초원을 배경으로 멋진



몽골에 온 목적 그 자체! 흠스골과 오랑 터거

별을 찾아 떠난 흠스골 호수

모래바람을 잔뜩 일으키며 덜컥거리는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리다 보니 저 멀리 호수가 보였다. 여태 몽골에 머무르는 동안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그동안 쌓인 티끌이 단숨에 날아갔다.

'어머니의 바다'로 불리는 흠스골 호수는 바라보기만 해도 압도당하는 규모를 자랑했다. 드넓은 광경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몽골 북서부 흠스골 주에 위치한 흠스골 호수는 몽골에서 가장 큰 담수호다. 반질반질해진 자갈이 흰하디 보일 정도로 깨끗한 물과 끝없이 높은 침엽수림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명성이 자자한 호수였다.

흠스골에 가기 전, 분홍색 옷을 맞춰 입고 간 기자들은 파란 호수를 배경으로 계속 사진을 찍었다. 호수에 가니 잘 안되던 인터벳이 잘되자 우리는 바로 부모님과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나둘 영상통화로 전환했다. "나도 해야지" 하고 필자 역시 전화를 걸었으나 다들 바쁜지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이 엄청난 걸 못 보여 주다니. 사진을 보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랠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녁 먹음 시간이 다 되자 풍경 좀 더 눈에 담고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늦췄다. 숙소 식당에 모여 저녁으로 닭볶음탕을 먹었다. 한국에서 먹는 닭볶음탕과 같은 거라 큰 주재료인 닭 뼈이 없었지만, 채소가 전혀 없었는데도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릇을 다 비울 때쯤, 운전 기사 '친바'는 몽골까지 왔으니 오늘은 꼭 마셔야 한다며 보드카를 권했다.

답소를 나누다 점점 알뜰해질 무렵, 7살 남자 아이 '오스틴'이 우리 자리로 와서 계속 흠스골을 쳐다봤다. 처음에는 수줍은 듯 배시시 웃기만 하던 오스틴은 금세 장난을 걸었다. 맛장구를 치자 신난 아이와 함께 놀았다. 화장실에서는 처음 본 사이인데도 친근하게 말을 걸어온 이스라엘 여행객들과 대화가 오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와 친구가 됐다.

자정이 넘은 시간, 별 보러 몽골에 온 만큼 제대로 별을 보여 주겠다며 본인을 믿고 따라오라던 친바와 함께 다시 흠스골호를 찾았다. 오직 휴대폰 손전등 불빛과 서로에게 의지한 채 발걸음을 내디뎠다. 별을 보러 간다는 마음 하나로 뽄뽄 뽄뽄 우리는 누구 하나 다치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칠후 같은 어둠 속에서 뾰족한 침엽수림이 으스스한 느낌을 더했다. 보드카를 한 잔씩 마신 터라 얼큰한 상태라 그런지 가고 있는 방향도 몰랐다. 몇 분이 지나을까, 물소리가 들려서 앞을 보니 낮에 봤던 파란 호수가 까맣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펼쳐진 별천지. 수많은 별이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와!" 모두가 심취돼 연신 탄성을 내질렀다. 봐도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풍경에, 보드카의 숙취는 온데간데 없이 낭만적인 분위기에 한껏 취한 밤이었다.

오랑 터거 화산에서 만끽한 풍경

다음 날, 드디어 오랑 터거 화산에 당도하는 듯했다. 초원에 차량을 멈춰 세우고 내려자 화산은 3~40분가량 등산해야 한다고 했다. 해발 1,686m인 오랑 터거 화산은 오르고 내려가면 빠르게 등산해야 했는데 해가 떨어질 때쯤에야 도착해 발을 바빠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원만해 보였던 화산은 쉽지 않았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대했다. 산을 오르며 오를수록 경사는 가파른 데다 미끄러운 흙길에 돌멩이가 더해져 발을 헛디디기 심상이었다.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한 발씩 내딛기 시작했다. 계를 마치 평지를 걷듯 휘적휘적 빠르게 앞서 나갔다. 추울까 싶어 저마다 판초를 두른 우리는 흘날리는 판초 자락을 손에 꼭 쥐고 가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를 뒀을까, 오랑 터거 화산 정상에 다다랐더니 우리나라의 서낭당과 같은 '어워'가 반기고 있었다. 올라가자마자 계를 따라 소원을 빌며 어워 주위를 세 바퀴 돌았다. 그제서야 탁 트인 화산과 분화구에 눈이 들어왔다. 2만 년 전에 폭발한 후 활동을 멈춰 사화산이 됐다는 오랑 터거 화산은 분화구에 호수가 있고 그 뒤편에 숲이 자리했다. 맑은 공기를 힘껏 들이마셨다.

시력이 좋아졌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저 멀리 있는 산꼭대기가 훤히 보였다. 계를 시력 증진을 목적으로 몽골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너나 할 것 없이 쟁쟁하게 비치는 햇빛과 함께 고원이 펼쳐지는 풍경에 흠뻑 빠져들었다. 경이로운 풍경에 모두 말을 잃었다.

얼마간 감상을 뒤로 하고, 금방 하산했다. 자칫하면 구를 수도 있어서 조심하느라 등산할 때보다 오래 걸렸다.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오다 보니 금세 해가 졌다. 분홍빛과 주홍빛으로 물든 하늘이 우리를 뒤에서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1. 오랑 터거(Уран Тогоо)
2. 어워(Овоо)



가깝고도 먼 나라, 몽골

- 1. 아롤(Аарул)
2. 차강 이데(Цагаан идэ)
3. 수테차(Сүүтэй цай)

다양한 매체와 지인들을 통해 충분히 많은 정보를 들은 뒤 방문한 몽골이지만, 7일간의 짧은 여정 속에서 취재 부가 만난 몽골은 생각보다 더 생경한 타국이었으며, 때로는 반대로 아주 친숙한 곳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던 칭기즈칸 국제공항 주변과 도심 곳곳에서는 유독 '한국'을 자주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노민 마트에서는 '이런 것까지 있다고?'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초코파이 등의 한국 과자나 라면뿐 아니라 삼겹살이나 유자청, 울무차, 치약, 휴지, 화장품 등 분야를 막론하고 국내 브랜드 제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관광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 일정은 아니었지만 온 좋게도 투어를 이끌어 준 가이드와 운전기사의 친인척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방문할 기회가 두 차례 있었다. 몽골 현지인의 삶, 그리고 유목민의 삶 속에 녹아있는 몽골은 여행자들의 숙소나 공항, 관광지에서 느꼈던 정취와는 사뭇 달랐다. 단순한 관광객의 시선을 넘어 더욱 다양하고 내밀한 몽골의 전통과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몽골 유목민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

방문한 두 유목민 가정은 무척 다른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다.

유목민 A 씨 내외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부터 유목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동식 전통 가옥 게르가 아닌 일반적인 주택의 형태로 지어진 공간에서 살고 있어 언뜻 보기에는 유목민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A 씨 내외는 계절이 바뀌면 다른 지역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생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목민 B 씨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그는 부인과 결혼한 후부터 줄곧 조모가 물려준 게르에서 살았다. 지금은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초원에 터를 잡고 부인과 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양, 염소, 말 등 가축처럼 마리를 방목하며, 여름이 지나면 초원 뒤 언덕을 넘어가 다시 터를 잡고 국가에서 지정해 준 지역에서 겨울을 날 예정이라고 했다. B 씨에 따르면 유목민으로 국가에 인정받은 이는 여름철 본인이 원하는 곳 어디든 터를 잡고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겨울에

는 풀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게르를 설치하고 살아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무언가를 지녔다

비록 다른 주거 형태를 가졌을지라도 그들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가족을 놓아기 르며 생산한 유제품과 육류로 생계를 꾸리는 것은 같았다.

A씨와 B씨 가족 모두 기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기 무섭게 그릇 위에 산처럼 쌓인 '아롤'이라는 과자를 건넸다. 아롤은 소나 말의 젖을 이용해 직접 반죽한 것을 햇볕에 말린 음식으로, 몽골의 유제품 '차강 이데' 중 하나다. 딱딱하고 하얀 과자를 깨물어 먹으니 고소하면서도 시큼한 맛이 났다. 첫맛을 넣어 우린 물에 당일에 직접 짜낸 우유를 섞어 팔팔 끓인 '수테차'도 두 집 모두 여지없이 내주었다. 직접 만든 음식들은 모두 자극적인 맛보다는 원재료 본연의 맛을 오롯이 담고 있거나, 숨쉬는 매력이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 유목민들에게서 익숙한 한국의 정취를 느꼈다. 먼저 그들의 식사와 간식거리들은 마치 한국의 누룽지와 보리차를 보는 듯했다. 같은 아롤과 수테차 일지라도 그 맛과 모양은 집마다, 지역마다 달라 저마다 개성이 묻어났다. 또한 낯선 나라에서 온, 생판 낯인 기자들을 포용으로 반겨주고, 자신의 소중한 식사를 아낌없이 내주며, 헤어질 때는 과자 좀 가져가라며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는 푸근한 정은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와 닮아 있었다.

자연만큼 아름다웠던 그들의 미소

이처럼 같은 몽골 현지인일지라도, 그들의 삶은 제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름을 뒤로 하고 마주한 유목민 가족들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모두 티 없이 맑았다. 추운 겨울을 보내며 밭그스름해진 두 볼에는 늘 맑고 어린아이같이 일확천금 같은 웃음이 올라와 있었다. 그들이 활짝 웃을 때마다 덩달아 웃게 되곤 했다.

몽골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광활한 사막과 초원의 규모에 한 번 놀라고, 우리네만큼 따뜻한 이웃 사람들의 정에 두 번 놀라게 되는 나라다.

원료를 차곡차곡 모아 신문사 기자들끼리 여행을 간다더라는 이야기를 입사할 때부터 들어와서 그런지 언젠가 나도 꼭 그렇게 여행을 가겠노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뤄졌다. 아무지고 추진력 있는 기자들 덕분에 소망을 이루게 됐다. 혼자였다면 절대 못 갔을 몽골이었다. 바쁜 와중에 셀렘새도 없이 부랴부랴 짐을 꾸려 훌쩍 떠난 몽골에서 마주한 장면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사람들, 어찌 잊을 수 있을까?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이 펼쳐졌던 몽골을 그리며, 다시 한번 동행한 기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 송민경

대학 졸업 전, 신문사 기자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어 계획하게 된 여행이다. 몽골 여행이 힘들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내가 버리는 것은 맛있는 음식도, 좋은 숙소도 아닌 풍경 한 허니만을 즐기고 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매우 만족'이다. 시력이 맑아지는 것 같은 광활한 평야와 사막, 쏟아지는 별, 자유롭게 노니는 동물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이 탁 트이는 평화로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지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다면, 몽골로 떠나보는 건 어떤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될 것이다.

- 유지우

나의 8월 늦여름의 시간은 이곳에 머물러 있다. 짧았다면 짧고, 길었다면 긴 몽골에서의 7일은 시간이 흘러 가끔 까먹을 때는 있어도 영영 잊지는 못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 밤하늘을 수놓던 그 수많은 별들과 기운 좋은 공기, 눈이 맑아지는 풍경은 항상처럼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몽골 여행이 당연히 좋지만 하진 않았다. 동행을 구하며 화도 났고, 여행 준비 자체도 손조름진 일이었다. 본문에 적지는 않았으나 가이드와 사소한 마찰도 있었고, 몸은 갈수록 점점 힘들어졌다. 밤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게 옷을 세 겹씩 꺼내고 벌레를 피해 모기장 안에서 잤으며, 낮에는 뜨거운 햇빛 덕에 모자와 선글라스가 필수였다. 그럼에도 다시 몽골에 갈 생각이 있다고 묻는다면, 필자의 대답은 당연히 "예"다.

- 김나연

서울의 뻘뻘한 고층 건물과 붐비는 도로를 무척 답답해하는 나에게 시야에 걸리는 것 하나 없이 탁 트인 초원과 하늘은 정말이지 선물 같았다(다만 울란바토르는 서울만큼이나 혼잡하고 바쁜 도시였다). 일평균 7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고, 매일 다른 숙소로 이동하느라 기진맥진해져 바깥 구경을 오래 하지 못한 것이 내 유일한 아쉬움이다. 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과 차멀미가 심한 경우를 빼고,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몽골을 방문해 보시길! 다시 몽골에 갈 수 있다면 그때는 천당 가이드와 운전기사 없이 '배낭여행'으로 떠나보고 싶다.

- 김경민

대한민국 환경 오염의 현주소



비약적인 기술 발전,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 낭비와 화학 연료의 남용은 환경 파괴를 수반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자연재해는 지구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 및 심화되고 있다.

홍콩에 본부를 소재한 비영리 환경단체 Earth.Org는 '2022년의 가장 큰 환경 문제 12가지'라는 보고서에서 화학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 음식물 쓰레기, 생물 다양성 손실, 플라스틱 오염, 삼림 파괴, 대기 오염, 녹는 만년설과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패스트 패션과 섬유 폐기물 등을 꼽았다.

과연 국내 환경 오염과 현상은 어떻게.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추진(CAT)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총 6억 7천만 M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대한민국은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어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오고 있다. [출처: e-나라지표] 또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9t을 기록하며 세계 6위에 해당한다. CAT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에서 억제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이 배출량의 65%를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

지 않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며 새 기후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는 2021년~2022년 동안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조사한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평균 950.6g으로 5년 전 제5차 조사(929.9g)보다 약 2.2%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0년 기준 국내에서 558억 개(873,833톤)의 생수 페트병, 플라스틱 컵, 비닐봉투, 배달 용기가 사용됐으며 이는 1인당 208kg을 배출한 셈이다. 이는 타 OECD 국가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가정에서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는 109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에 반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매년 흡수하는 탄소의 양은 줄어들고 있다. 산림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매년 새롭게 흡수하는 탄소량은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산림의 불균형한 나이 분포가 흡수량 감소의 주요 이유라며 미래 숲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밖의 수많은 환경 오염과 파괴는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한 환경 문제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의 연평균 온도는 1908년 10.4도에서 2022년 13.2도로 상승했다.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상 기후를 넘어 기후 환경 자체가 변모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영화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된 지 오래다. 현주소를 미뤄 보면 우리의 생활 습관과 환경에 대한 태도 점검이 시급하다는 사실이 자명해 보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환경 보호를 위한 첫걸음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나도 여전히 무더위는 계속된다.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는 우리에게 닥친 환경 문제 중 하나다. 미래 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오염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디지털 시대의 발전에 맞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센터에 보관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우리는 단지 불필요한 이메일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 에어컨을 1주일 내내 틀 때보다 1년간 지우지 않은 메일에서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고 한다. 디지털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메일함을 들어가 안 읽은 메일을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

친환경 생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사용자의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다.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폐휴대폰을 반납하는 등 소소한 실천만으로도 참여가



▲ 출처 : 인천투데이

가능하다.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텀블러를 사용하면 1회당 300원이 적립된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필자는, 최근 들어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손님이 많아진 것을 체감한다. 따로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러한 작은 실천으로 환경도 지키고 환급도 받으니 일석이조 아닌가 싶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한 친환경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 '용기내 챌린지'는 플라스틱 용기, 등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 용기에 음식을 포장해 오는 운동이다. '용기(courage)'를 내서 '용기(container)'에 음식을 포장하고 SNS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2020년 환경 보호 단체 그린피스에서 시작했다. 이 챌린지는 인스타그램 #용기내챌린지 해시태그 수 2.7만을 넘기며 환경 보호에 관심 없던 사람들마저 관심을 갖게 했다.

유튜버 '쓰레기 왕국'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막자는 취지에서 직접 챙긴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해 오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일회용품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함께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쓰레기 왕국의 영상으로 쉬운 실천부터 따라해 보자.

"나 하나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있겠어?" 대부분 개인의 실천은 환경 보호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반대로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바뀌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구를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환경 문제를 두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선례와,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 기업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살펴봤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환경 문제는 갈수록 심화돼 가고, 일반 대중들의 인식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 삶의 터전이자 후손들의 터전인 지구를 위해 지금이라도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보도록 하자.

외면하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쓰레기의 변신

마포구 삼암동에 위치한 '하늘공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생공원이다. 이곳은 2002년 제17회 월드컵을 기념해 생활폐기물로 오염된 남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자연 생태계로 복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늘공원은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노을공원과 함께 월드컵 경기장 주변 5대 공원을 이룬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오염된 침출수를 처리하고 지반 안정화 작업을 한 뒤 초지 식물과 나무를 심어 자연 생태계를 복원했다. 테마별로 역사식재지, 해마라기식재지, 매립식재지 등으로 구성된다.

하늘공원은 재생공원인 만큼 다른 공원과 다르게 특별히 자연 에너지를 사용한다. 5개의 대형 바람개비를 이용한 30m 높이의 발전 타워에서 100kW의 전력을 생산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또한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정제 처리해 월드컵 경기장과 주변 지역의 천연가스 연료로 활용한다.

하늘공원은 매년 10월 역사 축제를 개최한다. 전국 23개 시도에서 공수해 식재한 다양한 역사와 코스모스를 보러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장소가 됐다.

외국에도 버려진 존재를 재탄생시킨 사례가 있다. 패션업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 중부 소도시 '프라토'는 이처럼 환경 오염의 주범인 헌 옷을 새 옷으로 바꾸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프라토는 한 구역에 수백 개의 기업으로 이뤄지며 각 기업은 실을 만들고, 직물을 짜거나 옷을 디자인하는 등의 공정 특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무려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옷의 15%가 프라토에서 재활용된다.

기증받은 옷들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세탁한 뒤 작게 조각내어 말리면 새로운 울 섬유가 탄생한다. 이 섬유들을 각 패션 브랜드가 사간 뒤 새 옷을 만드는 것이다. 모직을 재활용하는 것은 새 섬유로 옷을 만들 때보다 탄소 배출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또한 기증받은 옷들을 색상별로 분류해 작업하기 때문에 염색제 사용도 줄어들고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큰 영향을 준다. 과거 이곳 주민들은 새 옷을 살 돈이 없어 옷을 재활용했으나 100년이 지난 후 재활용 기술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패션업계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됐다. [참고: MBC NEWS]

과거엔 '리사이클링'에 집중했다면, 요즘은 '업사이클링'이 대세다. 리사이클링은 폐기물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고,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재창조시키는 것이다. 최근 SNS에는 플라스틱 병뚜껑을 기증받아 키링으로 재탄생시키는 계정이 많이 보인다. 또한 '프라이탁'과 같이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유행하며 사람들에게 업사이클링이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했던 물건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구를 지켜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구의 미래

지구온난화 시대.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친 환경을 이행하는 사람이 없다.

요즘 대세인 '스탠리' 텀블러는 SNS와 일상에서 자주 보인다. 그러나 이 텀블러를 꾸미는 것이 유행해 키링, 거치대, 전용 얼음 틀과 빨대 등 텀블러를 위한 액세서리가 또 생산된다. 심지어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을 텀블러에 넣어 마시면 잘 녹지 않는다는 텀이 유행한 뒤 테이크아웃 컵과 텀블러를 동시에 사용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친환경의 역설, 즉 '리바운드 효과'라 한다. 친환경을 위한 행동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젠 진정한 '친환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다. 피상적인 친환경은 지구를 더 아프게 만들 뿐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지자체의 환경 보호 노력은?

환경 보호 실천을 이끄는 다회용기 체험기

를 제공받았기에, 이 경험을 생생히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는 축제에서 점심, 저녁 및 간식을 구매했는데 모든 매장서 다회용기를 제공받았다. 처음엔 다회용기인 줄 몰랐으나 많은 사람들이 한 부스에 모여 용기를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회용기 사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회용기 반납을 위해 무더위 속 긴 줄을 기다리는 것은 힘들기도 했지만, 환경을 생각하니 당연히 기다려야겠다는 마음이였다. 만약 일회용기를 사용했다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왔을 것이기에, 이렇게 지자체(기업) 측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소비자 동참을 촉구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환경 보호에 동참하도록 지원하는 기업·지자체의 사례를 알아봤다. 두 가지의 사례를 단편적으로 살펴봤지만, 이외에도 많은 기업이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 차원에서 소비자가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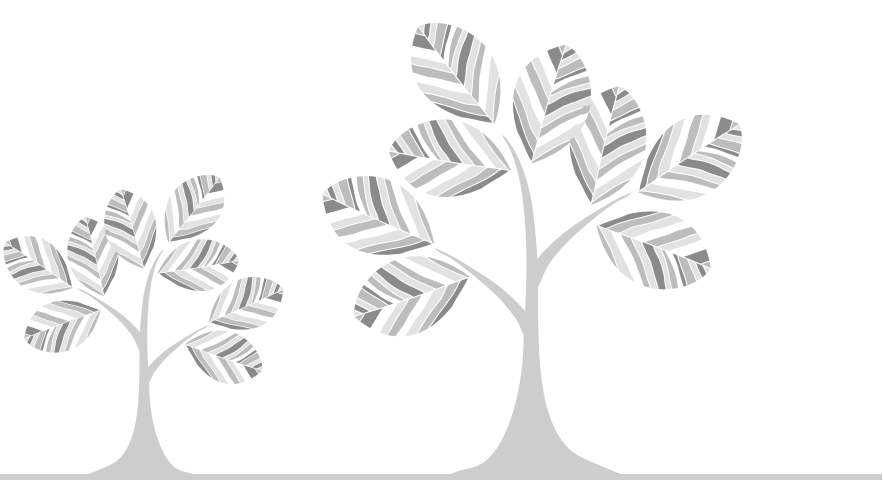


앞서 환경 오염 현황과 쓰레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사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 속 실천에 대해 살펴봤다. 개인적 실천과 더불어 기업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많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도입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저감, 재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나아가 소비자들의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기업·지자체의 노력을 알아보고, 필자의 경험을 공유하겠다.

먼저, CJ제일제당은 즉석밥(햇반) 용기 재활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인천, 경기, 경북 등의 지역자활센터와 협업해 용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이는 즉석밥 용기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기업이 직접 나서 환경 보호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페이커스와 함께 사용된 용기를 수거해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햇반 용기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지난 7월까지 진행했다. CJ제일제당이 회수한 용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 및 세척해 원료로 만들면, 카카오페이커스가 이를 활용해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CJ제일제당은 용기 순환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가 용기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편, 기업과 협력해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지자체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인천펜타포트트래픽페스티벌에는 다회용기가 사용됐다. 이는 인천광역시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잇그린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한 것이다. 축제에 참여한 많은 이들은 푸드존에 입점한 매장서 제공받은 다회용기를 사용한 뒤 반납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3일간 15만 명이 참여한 축제에 총 275,370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됐으며, 이를 통해 일회용품 생활폐기물 약 2.8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축제의 다회용기 회수율은 98%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인천펜타포트트래픽페스티벌에 참여한 필자 역시 다회용기



오늘의 책

날개이자 굴레 - 충실한 마음 _델핀 드 비강



▲ 출처 : 교보문고

어린 시절에 세상을 올려다보며 가졌던 크고 작은 다짐들이 있다. 이를테면 "나는 저런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혹은 "난 커서도 이렇게는 안 되어야지" 하는 것들.

살다 보면 말로 행동하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한다. 외부의 자극으로 산산조각이 난 우리의 의식은 작은 파편으로 쪼개져 무의식 속에 자리 잡는다.

이처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는 견고한 존재들이 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기억에 묻혀 가라앉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의 자아를 형성하기도 한다. 잊은 줄 알고 살다가

불현듯 다시 떠오를 때도 있다.

"충실한 마음 -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가치, 저항하게 하는 근거, 우리의 날개이자 굴레." 책 '충실한 마음'의 지은이 델핀 드 비강은 개개인에게 내재한 저마다의 가치와 다짐을 일종의 충실함이라고 정의한다. 그녀에게 충실한 마음이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굳은 신념이자,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존재다.

책 속에는 부모가 이혼해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인 테오, 그의 절친한 친구 마티스, 담임교사 엘렌, 그리고 마티스의 어머니 세실이 등장한다. 아이들의 담임인 엘렌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테오에게서 있고 있던 자신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한다. 하지만 어릴 적 그녀가 겪은 부모의 학대는 트라우마뿐 아니라 과거 그녀처럼 죄없이 고통받은 아이들이 도 아프도록 단단한 결의는 엘렌에게는 곧 '굴레'다. 그녀는 지나치게 테오를 걱정하는 자신의 모습이 의아하고 원망스럽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는 아이를 지나치지 못하게 막는다. 결국 그녀는 절실한 순간 테오에게 구원의 날개가 된다.

작가는 인물들이 지닌 저마다의 충실한 마음과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절묘하게 병

치해 놓았다.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자라는 아동, 그로 인한 청소년의 음주 문제, 정서적 학대와 같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 지닌 파괴성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개인이 가진 충실함에 기대어 드러난다. 델핀 드 비강은 책을 통해 충실한 마음은 옳고 그른 것으로 재단할 수 있는,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어른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아이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했다는 점에서 색다르다. 어른들이 겪는 내적 갈등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어리숙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반면, 아이들이 처한 상황과 심리는 객관적이고 명료한 문장으로 묘사된다. 비교적 건조한 문체가 아이들이 겪는 갈등과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한다.

내 마음속에 뿌리내린 '충실함'은 과연 무엇일까? 과거 어떤 기억이 나의 날개와 굴레가 됐을까? 시점을 달리하는 독특한 구성과 함께 나의 충실함에 대해 고민하며 책장을 넘기면 좋겠다. 책 충실한 마음은 내 안의 낙담함과 견고함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안내서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오늘의 전시회

틀어박힌 고정관념을 깨는 시간 -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인디언'이라고 하면 저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다 다른 언어와 풍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몇십 개의 부족들이 이주민에 의해 '인디언'으로 통칭돼 불렸다. 본 전시는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북미 원주민들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자, 전시 제목처럼 우리가 인디언으로 부르던 북미 원주민을 편견 없이 바라볼 기회가 될 것이다.

1부 <하늘과 땅에 감사한 사람들>은 북미 원주민들의 가치관, 생활, 문화 등을 소개

하며 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준다. 자연은 원주민들에게 음식과 보금 자리를 주었고, 이들은 늘 자연을 존경하고 감사해했다. 본격적인 전시 공간에 들어가면 대평원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보금자리 '티피'가 큰 모형으로 전시돼 있다. 그 옆 쪽으로는 남서부 지역 여성들이 오래전부터 만들어 온 전통적인 항아리와 그릇이 진열돼 있었다.

1부의 첫 번째 공간을 넘어가면 남서부, 북극, 북서 해안, 캘리포니아, 남동부, 북동부, 대평원 일곱 지역의 공예 문화를 차례대로 설명하는 큰 공간이 나온다. 그 중 가장 흥미로웠던 지역 두 곳을 소개하겠다. 먼저 북서 해안 지역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동물이나 신화를 무늬로 표현했다. 토템의 기둥이나 모자 부분을 자세히 보면 독수리, 까마귀와 같은 동물이 새겨진 걸 볼 수 있다. 특히 독수리는 파괴케와크족 문화에서 하늘의 주인으로 여겨져 육신과 영혼의 세계를 오가는 창조주의 메신저로 믿어졌다. 다음으로 남동부는 다른 지역보다 일찍 이주민과 접촉해 문명화 된 다섯 부족이 살았다고 한다. 세미놀족의 남성 전통 의상은 보이는 것만 해도 87가지가 넘는 색상을 활용한 화려한 무늬가 그려진 유럽풍 형태를 띤다.

공예품을 전시한 공간을 지나면 북미 원주민들이 부족마다 다양하게 의식을 치르는 방식을 소개한다. 아파치족은 독특한 왕관 모양의 탈을 쓴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춘다. 질병과 적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의식으로,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다.

2부 <또 다른 세상과 마주한 사람들>에선 낯선 이주민들을 만나고 시작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이주민들이 기존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그림이 눈에 띈다. 그 옆엔 미국 사우스코스타주의 원주민 보호 구역 '운디드나'에서 원주민들이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을 담은 그림이 전시돼 있다. 1부와는 다른 분위기의 작품들이 계속되며 북미 원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다.

원주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원주민을 사라진 존재로 생각하거나 아직 '인디언'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더 자세한 북미 원주민들의 삶이 궁금하다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

신기은 수습기자 (yulyul1214@skuniv.ac.kr)

- 전시기간 : 2024. 06. 18. ~ 2024. 10. 09. 휴관일 2024. 09. 17. (추석 당일)
- 관람시간 : 월화목금일 10:00~18:00 / 수토 10:00~21:00 (폐관 30분 전 입장 마감)
- 전시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 관람비용 : 성인 10,000, 청소년 7,000, 어린이 5,000

오늘의 장소

오래된 연필과 그에 담긴 이야기가 있는 곳 - 작은연필가게 흑심



오늘날 연필은 그 가치가 많이 희석됐다. 비교적 간편한 대체제가 너무도 많은 까닭이다. 하지만 우리 결엔 여전히 연필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이들은 손끝으로 느껴지는 사각사각한 느낌을 좋아하고,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하는 수고로움을 즐기며, 짧아진 몽당연필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곳이 있다. 연남동 귀퉁이에 위치한 '작은연필가게 흑심'이다. 이곳은 단종된 빈티지 연필들과 그 밖의 문구용품들을 수집, 판매하는 곳이다. 다른 무엇보다 어린 연필을 전문적으로 판매하

는 곳이라니, 연필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솔깃할 정도로 흥미로운 곳이 아닐 수 없다.

작은연필가게 흑심은 이름처럼 정말 작고,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터라 지도를 보며 찾아가는 과정이 보물찾기하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입구에 다다랐을 때, '과연 어떤 보물이 있을까' 하는 사소한 흑심과 함께 흑심으로 들어섰다.

흑심의 문을 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가게의 인테리어다. 다양한 연필들이 전시된 선반 위로 빈티지 연필 상자들이 가게 곳곳을 수놓고 있다. 국적, 시대, 종류를 막론한 연필 상자의 결집은 독특한 감성을 자아내고, 이것은 흑심만의 비장의 무기처럼 느껴졌다. 거시적인 시야에 감탄한 후 허리를 숙여 미시적으로 흑심의 이곳저곳을 탐방했다. 가장 유명한 연필 브랜드, '블랙윙'부터 다양한 연필 브랜드들이 정렬돼 있었다. 놀라운 것은 연필마다 가게 주인이

정성껏 작성한 메모가 곁들여져 있는 점이였다. 해당 연필의 역사와 장점, 어떤 성향의 사람에게 추천하는지 상세하고 친근하게 적혀 있었다. 직접 써볼 수 있는 사필 공간은 물론이었다. 흑심은 나와 잘 맞는 연필을 이어주는 오작과 같은 곳이었다.

프랑스의 심어송라이터 조르주 브라센의 LP가 잔잔히 흘러나오고, 인센스 향과 나무 향이 어우러지는 곳. 그리고 그곳을 가득 채운 연필들, 흑심의 첫인상은 잊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가게 주인의 정성과 취향이 확실하고 풍근하게 느껴지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 문 하나를 두고 새로운 세상에 다녀온 기분이었다. 연필에 관심이 많지 않더라도, 이전에 보지 못한 독특한 공간을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작은 연필가게 흑심을 추천한다.

전준혁 기자 (nicejackkyhu@naver.com)

- 주 소 : 서울 마포구 연남동 226-34, 3층 (삼천리 자전거 건물)
- 운영시간 : 화-금 13~20시 / 토-일 13~19시 / 월 휴무 /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정기 휴무

오늘의 드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 닝쿨재 굴러온 당신 (2012)



▲ 출처 : KBS

1역이나 오른 전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한 이사, 이삿날은 비가 폭포 오듯 쏟아지고, 도배해 준다는 조건에 계약한 집인데 막상 들어오니 돈 대주기가 싫다는 집주인!

못 볼 꼴 다 보여주며 싸운 앞집 집주인 할머니가, 알고 보니 내 시어머니라면? <닝쿨재 굴러온 당신>은 시청률 45%를 찍을 정도로 인기였던 12년 전의 안방 드라마다. 시월드에 대한 유쾌한 스토리로 특히 여성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어릴 때부터 남편과 싸우고,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기생 며느리에게 구박받으며 사는 엄마를 보며 자라온 윤희, 윤희는 일명 '능력 있는 고아'를 만나 '시월드' 없는 완벽한 결혼에 성공한다. 그런 그녀에게 30년 전 부모님을 잃어버린 남편 귀남이 가족과 상봉하게 돼 닝쿨재 굴러 들어온 줄줄이 가족들. 귀남은 가족들과 지내며 점차 어릴 때의 기억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중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있었다. 바로 아이가 없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눈치 받던 작은어머니의 의도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것.

귀남은 제 인생을 바꿔버린 사람이 자신의 가족임에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귀남은 끝내 작은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한다. 자신을 유괴한 사람을 용서한 귀남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너무 밋지만 작은어머니의

충동적 선택을 이해한 것일까. 만약 가족이 아닌 타인이 본인을 유괴했다더라 귀남은 그를 용서했을까? 드라마를 보며 '가족'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깊이 생각해볼게 됐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도 용서할 마음이 들고, 어쩌면 내 꿈을 포기하고 삶을 희생하더라도 지키고 싶은 존재가 바로 가족인 것일까?

흔히 농담 식으로 가족끼리는 떨어져 살아야 사이가 끈끈해진다고들 한다. 필자도 그 말에 깊게 동의하는 바이지만, 지지고 볶으면서도 부대끼며 살아야만 느껴지는 가족의 정이 있다. 그 정은 받아도 받아도 고달파서, 평생 목마를 수도 있다.

윤희가 유학을 포기하고 귀남과 한국에 남는 것, 30년이 지났지만 귀남의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귀남을 찾은 것, 귀남이 작은어머니를 용서한 것, 남들 예전 어리석은 행동으로 비칠지 몰라도 이들의 이유는 하나다. 가족 이니까.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오늘의 음악

선선한 바람과 음악으로 누리는 여름의 끝자락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인 9월이 찾아왔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 음악과 함께 순간을 누리 보는 것은 어떨까? 산책, 나들이 등 각자가 바람을 만끽하는 순간 함께 듣기 좋은 곡을 추천한다.



▲ 출처 : 바비브

♪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불꽃없지만> - 잔나비

"그리운 그 마음 그대로 영원히 담아둘거야 언젠가 불어오는 바람에 남몰래 날려보겠소"

잔나비 첫 번째 정규앨범의 타이틀곡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불꽃없지만'은 잔나비의 감성을 잘 나타내는 대표곡으로 꼽힌다. 또한 제목이 길어 일명 '뜨여남뽀'이라 불리기도 한다. 잔나비 리더 최정훈은 이 곡에 자신의 사랑과 이별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소중한 여름밤의 추억을 남기는 것도, 바람에 날려 보내는 것도 각자의 몫이니, '뜨여남뽀'와 함께 여름의 추억을 회상해보자.



▲ 출처 : 바비브

♪ <나의 바람 (Wind And Wish)> - 비투비

"Woo Ah Woah 내 맘을 전해줘 저 멀리 그대에게 닿도록 Woo Ah Woah 내 바람이 스칠 때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나의 바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비투비의 미니 12집 'WIND AND WISH'에 수록된 타이틀곡이다. 앨범명과 이 곡의 영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람'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불어오는 바람과 사랑하는 이의 행운·행복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의 의미를 재치 있게 푼 가사를 음미하며 공경 넘어서기를 느껴보자. 더불어 노래 가사처럼 불어오는 바람에 내가 지닌 바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가을을 맞이하자.

강예진 수습기자 (jinwvd@skuniv.ac.kr)



▲ 출처 : 바비브

♪ <비밀의 화원> - 아이유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

이 곡은 지난 2008년 발매된 이소은의 원곡을 아이유가 리메이크한 것이다. 이를 감상해 보면, 아이유의 감성이 묻어있는 따뜻한 문장과 선율을 느낄 수 있다. 첫 소절의 바람을 타고 나는 걱정 없는 새들처럼 여유로움을 찾아 어디든 떠나보자.

오늘의 모기심

우주의 비, 유성우



▲ 출처 : 스타히그

지난 8월 12일,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쏟아졌다. 천문대 유튜브 채널에서 유성우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올랐다. 유성우는 왜 비처럼 많이 내리지 않냐는 필자의 질문에 부모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유성우가 그렇게 내리면 다 죽어." 별똥별이라는 귀여운 이름으로도 불리는 유성이 많이 내리면 다 죽는다니, 어린 나이였던 필자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뒤로 필자는 아름답지만, 위험한 유성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우주의 비, 유성우는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오르트 구름'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가수 윤하의 노래 제목으로도 유명한 오르트 구름은 별이나 행성이 되지 못하고 태양계 가장자리를 떠다니는 돌 조각들을 의미한다. 이 중 태양을 향해 달려오는 돌 조각들이 있는데, 이

것이 바로 혜성이다.

유성우는 이 혜성의 궤도와 지구의 궤도가 교차할 때 생긴다. 혜성이 지나간 자리를 지구가 통과할 때, 혜성이 남긴 대량의 암석 부스러기들이 지구 인력에 이끌려 대기로 들어온다. 이때, 대기와의 마찰로 생긴 마찰열로 암석이 빛을 발해 빛나는 유성이 된다. 지구가 혜성의 궤도를 가로지르는 날짜는 대체로 정해져 있어 우리는 특정 시기마다 유성우를 볼 수 있다. 3대 유성우라 불리는 1월 사분의자리 유성우, 8월 페르세우스 유성우와 12월 쌍둥이자리 유성우가 바로 그것이다. 11월에 볼 수 있는 사자자리 유성우는 33년마다 찾아오는 템펠-터틀 혜성이 지나가면 1시간에 수천 개의 유성이 대거 출현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사람의 시야로는 실제 떨어지는 유성 개수의 10분의 1 정도만 관측할 수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